

여수,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2026년 하반기 준공 '순항'

유관기관 협업으로 난제 해소... 공정률 90% 달성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해 총 2.8km 규모의 수변 데크길과 전망데크, 경관조명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친수 여가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차장과 화장실 확보, 순환 산책로 조성을 위한 저수지 제방 활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여수시와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여천농협은 주차장 150면 개방과 화장실 1개소 신축에 협조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순환 산책로 연결에 필수적인 제방 및 진

입로 시설물 사용을 승인했다. 여수시는 진입로 가로등 설치와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하며 사업 완성도를 높였다.

현재 산책로와 안전난간 설치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해 공정률 90%를 달성했으며, 시는 2026년 하반기 중으로 경관조명 설치를 마무리하고 폭염 대비 그늘쉼터 등 편의시설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인 상생 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기저수지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은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

게 된다. 특히 수변을 따라 조성되는 데크길은 저수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망데크와 경관조명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야간 경관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점검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계절별 자연환경과 어울린 다양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지속적 환경 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활용 방안도 검토해 관광객 유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관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현장 전경 사진

/여수 시청 제공

순천 원도심, 6월 축제·이벤트 풍성

순천시와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은 6월 한 달간 원도심 주요 축제와 연계해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소비 촉진 프로모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원도심 인근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 행사와 연계해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원도심 상권으로 유도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기획됐다.

먼저 '원즈 순천' 기간인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원도심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남문터광장에서 열리는 원즈 순천 행사장을 시작으로 루미&퐁이 캐릭터스토어(연자로 6), 루미네오 락실(별미길 18) 등 상권 내 주요 거점을 방문해 스탬프를 모두 모으면, 원도심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5천 원권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원도심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발전전략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광양시는 지난 6월 8일 시청 만남실에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후속 발전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국내 어업 분야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는 관계 공무원과 어업인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의 최종 결과 보고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재첩잡이 손틀어업 현황 조사 및 분석 ▲재첩잡이 손틀어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손틀어업을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했

다. 특히 ▲재첩 생산 및 유통 실태 ▲어업인 현황 ▲어장 환경 변화 등 손틀어업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전통어업의 보전과 활용,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의 인지도 제고와 홍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섬진강 광양재첩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체험·관광 프로그램 연계, 가공시설 확충, 판로 확대 등 다각적 소득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의 전통성과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는 한편,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 불법시설 자진철거·신고기간 운영

전남 곡성군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군민과 방문객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로, 평상, 데크, 그늘막, 가설건축물, 경자지, 물건 적치,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유예하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행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단 영업 행위와 관련된 시설은 철거 기간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자발적인 정비에 응하지 않거

나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원상 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지난 3~4월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을 조사해 원상복구와 정비를 진행 중이며, 하천구역 내 조사에서 누락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시설 정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군은 이번 기간을 통해 불법시설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하천·계곡의 공공성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이일규 기자

구례 섬진강 수달생태공원, 어린이 특별 기획전시 '작은 정글' 운영

구례군은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섬진강수달생태공원 일원에서 어린이 특별 생태체험전 '작은 정글'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기존 수달 중심의 관람 콘텐츠를 확대해 곤충·파충류·양서류 전시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결합한 참여형 생태 문화 행사로 마련됐다. '숲속의 작은 거인, 곤충 존'에서는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나비 등 다양한 곤충 15종을 전시한다. 생애 주기 관찰 키트와 팝업 전시패널도 함께 운영해 자연스럽게 생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실내 '신비한 파충류 존'에서는 크레스티드 게코, 카멜레온, 개구리 등 희귀 파충류·양서류 20여 종을 선보인다. 야외 잔디광장에는 설 카타 육지거북 등을 만날 수 있는 '거북이 정원'도 운영된다. 어린이 눈

높이에 맞춘 안전 펜스를 설치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문 사육사가 참여하는 '생태교육·체험'은 생태 해설과 생물 찾기, 거북이 먹이 주기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이 생명 존중과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행사 기간에는 야생생물 사진작가 신응섭의 수달 생태 사진전과 사인회, 포토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섬진강 자연 생태를 담은 작품을 통해 자연과 공존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특별한 생태 체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섬진강수달생태공원을 생태·교육·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심선섭 기자